



5면
옛 수의대 리모델링
전북대 치대3호관 문 열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음 4월 23일) 제25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군산지역 조선기자재업체 '기지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4만125명 '적합' 판정

전북도·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협약 지역 조선사업 자생력 강화·신성장동력 등 기대감

군산지역 조선기자재업체들의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1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조선기자재업체들의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과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창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이병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장, 김홍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기자재업체들의 재생에너지로 업종 전환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기업 의존적인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해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업종전환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업종전환을 위한 공장 및 장비 구축과 이를 통한 풍력 하부구조물 및 태양광 부유체 제작 설비기술 개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금 지원 및 기업인력애로센터 등 맞춤형 연계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 임대 및 입주 등 행정지원을 맡게 된다.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및 태양광 구조물 가공 제작을 위한 협동화공장과 장비를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협동화공장을 통해 조선기자재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고, 관련 인력 약 32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해상풍력산업 선점을 위해 군산 인근과 서남권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비롯 관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을 통해 전북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시너지 효과

가 예상되며, 지역 조선사업의 자립과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쌓아온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재생에너지 구조물 제작 분야로 확대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가 돼 전북 경제의 위기 극복과 도약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회기는 곧 기회이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며 군산 조선산업이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으로

새로운 산업의 도약의 계기 마련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단지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며 "군산시는 전라북도와 필요한 예산 및 각종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이뤄지는 업종전환사업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생산의 허브로 도약해 지역산업 발전의 역군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1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창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이병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장, 김홍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공직자가 앞장서자

전북도·공무원노조, '배려풀 전북' 실천·확산 업무협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배려풀 전북'의 실천·확산을 위해 전북도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배려풀 전북'은 "아이(baby)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배려문화"를 통해 아이 가족(full)한 더 좋은(better) 전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은 도와 공무원노동조합이 협력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출산·육아 지원제도 개선, 배려문화 활성화 등 저출생 문제 극복에 공직자가 솔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려풀 전북 실천과제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 ▲특별휴가 '눈치 안보고 쓰기' ▲임신부 전용 승차 설치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확산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 송하진 도지사, 김형국 노조위원장은 예비엄마·아빠 대표직원에 대해 배려포시제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배려포시제는 출산을 앞둔 엄마·아빠임을 표시하는 명패로, 개인책상(회

방자)에 부착하여 사무실에서 직원 간 360°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진성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인본진흥재단

새로운 일상

생활속 거리 두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2020.05.06.